<h1>나 혼자만 레벨업-4화</h1>  
   
  
 <div class="view-img">  
  
</div>  
  
  
  
 <div class="q79ca3f0054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4화</p>  
<p>4. 세 가지 규율</p>  
<p>진우가 헌터들을 향해 소리쳤다.</p>  
<p>"다들!"</p>  
<p>헌터들의 시선이 진우에게로 모였다.</p>  
<p>진우는 그들을 둘러보며 말했다.</p>  
<p>"신상을 향해 절하세요!"</p>  
<p>헌터들이 고개를 갸웃거렸다.</p>  
<p>"절...?"</p>  
<p>"신상한테 절을 하라고?"</p>  
<p>서로 눈치를 살피던 헌터들이 곧 진우에게 욕설을 쏟아 냈다.</p>  
<p>"씨발...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!"</p>  
<p>"아니,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와?"</p>  
<p>"벌써 미쳐 버린 거냐, 성진우?"</p>  
<p>김 씨는 벌게진 얼굴로 콧김을 뿜어냈다.</p>  
<p>"내가 성 씨를 아주 잘못 봤구만! 지금 움직일 수만 있었으면 자네 주둥이부터 후려쳤을 거야!"</p>  
<p>진우는 아랫입술을 깨물었다.</p>  
<p>여섯 명의 동료가 저 신상에게 죽었다.</p>  
<p>그런 놈에게 절을 하라고 했으니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.</p>  
<p>헌터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.</p>  
<p>'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...'</p>  
<p>자신에게 논리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었다.</p>  
<p>그저 감.</p>  
<p>감이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.</p>  
<p>그런데.</p>  
<p>"나는 하겠네."</p>  
<p>목소리는 진우의 뒤쪽에서 나왔다.</p>  
<p>다들 시선이 그리고 옮겨 갔다.</p>  
<p>리더 격이라 할 수 있는 송 씨였다.</p>  
<p>"송 씨 아저씨...?"</p>  
<p>"저 빌어먹을 신상한테 절을 한다고요?"</p>  
<p>다른 헌터들이 당황하는 동안 송 씨는 진우의 눈을 들여다보았다.</p>  
<p>"자네는 뭔가 발견한 거지?"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"그것도 감인가?"</p>  
<p>"...네. 일단은."</p>  
<p>"그려."</p>  
<p>아까 진우의 감 때문에 11명이 살았다.</p>  
<p>지금은 주 씨가 죽어서 10명이지만.</p>  
<p>그런 진우의 감이라면 한 번 믿어 볼만하지 않나?</p>  
<p>송 씨는 그렇게 생각했다.</p>  
<p>송 씨가 신상을 향해 엎드리니 분위기가 숙연해졌다.</p>  
<p>"진짜 하는 거야?"</p>  
<p>여세를 몰아 진우가 목청에 힘을 실었다.</p>  
<p>"부탁드립니다! 다들 신상을 향해 엎드려 주세요. 어쩌면 살아나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!"</p>  
<p>살 수 있다.</p>  
<p>살아나갈 수 있다.</p>  
<p>그 한마디가 주는 파급력은 대단했다.</p>  
<p>'살 수 있다고?'</p>  
<p>'여기서 나갈 수 있단 말이야?'</p>  
<p>'그깟 절 한 번에?'</p>  
<p>머뭇거리던 헌터들이 한 명씩 엎드리기 시작했다.</p>  
<p>마치 절을 하는 형태로.</p>  
<p>하나둘 그 숫자가 늘어 갔다.</p>  
<p>투덜거리던 김 씨도 결국엔 신상에게 머리를 숙였다.</p>  
<p>하지만 신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.</p>  
<p>신상의 두 눈은 여전히 소름 끼치는 붉은빛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.</p>  
<p>진우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.</p>  
<p>'이게 아니었나?'</p>  
<p>문득 진우의 시선이 옆의 주희를 향했다.</p>  
<p>몸을 바짝 숙인 채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고 덜덜 떨고 있는 주희는 아무리 좋게 봐줘도 절을 하는 모습이라고 보기는 힘들었다.</p>  
<p>'어쩌면...'</p>  
<p>진우는 주희의 손목을 살포시 잡았다.</p>  
<p>그러자 주희가 겁먹은 고양이처럼 고개를 들었다.</p>  
<p>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그제야 주희가 손에 주고 있던 힘을 풀었다.</p>  
<p>진우는 천천히 주희의 자세를 바꿔 주었다.</p>  
<p>'됐다.'</p>  
<p>이제 마지막 한 명만이 남았다.</p>  
<p>바로 자기 자신.</p>  
<p>진우도 신상을 향해 무릎을 꿇고, 양 바닥을 짚고, 천천히 머리를 숙였다.</p>  
<p>그러자 변화가 시작되었다.</p>  
<p>"어, 어어?"</p>  
<p>변화를 알아챈 헌터들이 소리를 질렀다.</p>  
<p>"신상이? 다들 신상을 봐!"</p>  
<p>"신상의 눈이!"</p>  
<p>신상의 눈에서 이글거리던 붉은빛이 점점 사그라지고 있었다.</p>  
<p>"뭐야? 진짜 이걸로 되는 거야?"</p>  
<p>이윽고 붉은빛은 완전히 사라졌다.</p>  
<p>오오-!</p>  
<p>헌터들은 환호했다.</p>  
<p>"불꽃이 꺼졌어!"</p>  
<p>"살았다고!"</p>  
<p>흥분한 헌터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구 소리를 질렀다.</p>  
<p>그런데도 신상의 눈은 더 이상 광선을 뿜어내지 않았다.</p>  
<p>뒤늦게 고개를 든 진우도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.</p>  
<p>"후우-."</p>  
<p>예상대로였다.</p>  
<p>이 방은 게임처럼 철저하게 정해진 규칙대로 움직이고 있었다.</p>  
<p>'그렇다면.'</p>  
<p>아직 게임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.</p>  
<p>두 개의 규율이 더 남아 있었다.</p>  
<p>둘째, 신께 찬양하라.</p>  
<p>셋째, 신앙심을 증명하라.</p>  
<p>바로 그때.</p>  
<p>쿠구구구구구궁-</p>  
<p>끔찍한 소음과 함께 방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.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.</p>  
<p>'역시...'</p>  
<p>예감은 적중했다.</p>  
<p>끝이 아니었다.</p>  
<p>신상이 그 거대한 몸뚱이를 천천히 일으키고 있었다.</p>  
<p>"어, 어?"</p>  
<p>서로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던 헌터들이 이변을 깨닫고 돌처럼 굳어 버렸다.</p>  
<p>"뭐... 뭐야? 끝난 거 아니었어?"</p>  
<p>"마, 말도 안 돼!"</p>  
<p>다들 얼어붙은 채로 말을 잇지 못했다.</p>  
<p>그들의 얼굴에 절망감이 드리워갔다.</p>  
<p>"아... 아아..."</p>  
<p>마침내 신상이 완전히 일어섰다.</p>  
<p>놈은 주위를 한번 스윽 훑어보더니, 이내 헌터들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쿵!</p>  
<p>신상이 지면을 밟을 때마다 지축이 뒤흔들렸다.</p>  
<p>쿵!</p>  
<p>어찌나 큰지 까마득히 높아 보이던 천장에 놈의 머리 끝이 닿을 듯했다.</p>  
<p>쿵!</p>  
<p>놈의 크기에 압도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놈과의 거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.</p>  
<p>"이봐, 성 씨! 성진우 씨!"</p>  
<p>"무슨 방법 없어?"</p>  
<p>방금 전까지만 해도 진우를 욕하던 헌터들이 황급히 진우 주위로 몰려들었다.</p>  
<p>"방법이 없는 거야?"</p>  
<p>"말을 좀 해 봐!"</p>  
<p>다 큰 어른들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트릴 것 같은 표정들을 짓고 있었다.</p>  
<p>현재 진우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.</p>  
<p>진우는 얼어 있는 주희를 일으켜 세우며 두 번째 규율에 관해 이야기했다.</p>  
<p>"신께 찬양하라. 그게 열쇱니다."</p>  
<p>"아, 그건!"</p>  
<p>김 씨가 아는 척했다.</p>  
<p>"아까 그 석판에 적혀 있던?"</p>  
<p>"맞아요. 신께 경배하라, 신께 찬양하라, 신앙심을 증명하라. 세 가지 규율을 모두 만족시켜야 해요."</p>  
<p>진우의 말이 빨라졌다.</p>  
<p>신상은 벌써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.</p>  
<p>쿵!</p>  
<p>놈의 거대한 그림자가 헌터들에게 드리웠다.</p>  
<p>헌터들의 안색이 창백해졌다.</p>  
<p>"제, 제가 해 볼게요."</p>  
<p>평소에 거의 말이 없던 젊은 청년 헌터 하나가 앞으로 한걸음 나섰다.</p>  
<p>"이봐! 뭘 어쩌려고?"</p>  
<p>"교회 성가대 출신입니다. 찬양이라면 자신 있어요."</p>  
<p>청년은 김 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신상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다.</p>  
<p>신상을 올려다보며 호흡을 가다듬던 그가 마지막으로 한 번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.</p>  
<p>"주께 가오니-."</p>  
<p>방 안에 청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.</p>  
<p>"날 새롭게 하시고- 주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."</p>  
<p>신상이 그의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.</p>  
<p>오오-</p>  
<p>헌터들은 나직이 탄성을 내질렀다.</p>  
<p>신상은 노래에 심취한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.</p>  
<p>방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.</p>  
<p>청년의 목소리만이 고고하게 내부를 울렸다.</p>  
<p>용기를 얻은 청년은 더욱 목청에 힘을 실었다.</p>  
<p>"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-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-."</p>  
<p>그들 중 오직 한 사람 진우만이 불길한 예감에 몸서리를 쳤다.</p>  
<p>'아니... 아니야.'</p>  
<p>진우는 몇 번이고 속으로 말을 삼켰다.</p>  
<p>이 방 안에는 이 방의 룰이 있다.</p>  
<p>지금 청년은 이 방의 룰이 아닌, 기독교라는 자기 종교의 룰로 찬양하고 있었다.</p>  
<p>다행히 신상은 움직이지 않고 있었으나, 이걸로 규율을 지켰다고 할 수 있을까?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가로저었다.</p>  
<p>그럼에도 청년을 말리지 않았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신상을 막을 다른 방법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.</p>  
<p>바로 그때!</p>  
<p>쿵!</p>  
<p>묵직한 소음이 내부를 울렸다.</p>  
<p>"꺄아아아아아악!"</p>  
<p>여자 헌터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렀다.</p>  
<p>신상이 발을 들어 올리자 놈의 발바닥과 바닥 사이에서 으깨진 청년 헌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.</p>  
<p>다른 헌터들도 비명을 내질렀다.</p>  
<p>"아아아아-!"</p>  
<p>"으, 으아아아악!"</p>  
<p>여태껏 무표정이었던 신상의 얼굴이 분노로 잔뜩 일그러져 있었다.</p>  
<p>"화났다!"</p>  
<p>"도, 도망쳐!"</p>  
<p>헌터들은 급히 신상에게서 떨어졌다.</p>  
<p>"꺄아아아아아아악!"</p>  
<p>그러나 바로 눈앞에서 청년 헌터가 밟혀 죽는 것을 목격한 여자 헌터는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듯 제자리에 움직이지 못하고 꺅꺅 비명만 질러댔다.</p>  
<p>"꺄아아아악!"</p>  
<p>'젠장...'</p>  
<p>주희를 안아 들고 도망가던 진우가 그녀를 구하기 위해 돌아섰다.</p>  
<p>그러나 송 씨가 막아섰다.</p>  
<p>"아저씨...?"</p>  
<p>"이미 늦었네."</p>  
<p>신상은 파리를 때려잡듯 손바닥으로 여자 헌터를 내리쳤다.</p>  
<p>콰앙!</p>  
<p>"큭..."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돌렸다.</p>  
<p>차마 두 눈 뜨고 보지 못할 참혹한 광경이었다.</p>  
<p>"이러고 있을 시간 없으이. 그 아가씨까지 죽게 만들 셈인가?"</p>  
<p>송 씨의 말에 진우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.</p>  
<p>말 그대로였다.</p>  
<p>쿵!</p>  
<p>"으아아악!"</p>  
<p>쿵!</p>  
<p>쿵!</p>  
<p>"살려 줘!"</p>  
<p>이제 신상은 걷지 않았다.</p>  
<p>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밟아 짓뭉개고 있었다.</p>  
<p>놈이 발을 구를 때마다 방 전체가 흔들거렸다.</p>  
<p>쿵!</p>  
<p>쿵!</p>  
<p>진우는 이를 악물고 달리기 시작했다.</p>  
<p>주희는 눈을 꼭 감고서 진우에게 매달렸다.</p>  
<p>"떨어지세!"</p>  
<p>"예!"</p>  
<p>붙어 있으면 위험하다는 생각에 진우와 송 씨도 흩어졌다.</p>  
<p>진우는 날뛰고 있는 신상을 피해 최대한 구석으로 갔다.</p>  
<p>하지만 진우보다 빠르게 그쪽으로 달려간 헌터가 있었다.</p>  
<p>박 씨였다.</p>  
<p>박 씨는 젖 먹던 힘까지 다해 달렸다.</p>  
<p>가족들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다.</p>  
<p>"으흑-."</p>  
<p>집에는 자신을 쏙 빼닮은 아들과 둘째를 밴 마누라가 기다리고 있었다.</p>  
<p>여기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는 없었다.</p>  
<p>악을 쓴 덕분인지 헌터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신상에서 멀어질 수 있었다.</p>  
<p>"하아, 하아."</p>  
<p>구석에서 한숨 돌리고 있는 박 씨에게, 그와 친했던 김 씨가 다급히 소리쳤다.</p>  
<p>"박 씨!"</p>  
<p>박 씨는 익숙한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았다.</p>  
<p>"응?"</p>  
<p>김 씨가 박 씨의 등 너머를 가리키며 고함을 질렀다.</p>  
<p>"뒤! 뒤를 보라고!"</p>  
<p>그때 박 씨의 뒤쪽에서 뭔가 날카로운 것이 번쩍였다.</p>  
<p>"어...?"</p>  
<p>스걱!</p>  
<p>박 씨가 정수리에서부터 사타구니까지 두 쪽으로 반듯하게 쪼개졌다.</p>  
<p>찢어진 박 씨의 몸은 각각 양쪽으로 쓰러졌다.</p>  
<p>"박 씨!"</p>  
<p>검으로 박 씨를 내리쳤던 석상은 문지기가 그랬던 것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원래의 자세로 돌아갔다.</p>  
<p>김 씨가 그 모습을 보고 울먹거렸다.</p>  
<p>"이 씨벌놈들이...!"</p>  
<p>쿵!</p>  
<p>쿵!</p>  
<p>쿵!</p>  
<p>뒤에서는 거대한 석상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밟아 죽이고 있었고, 놈을 피해 구석으로 달아나면 그곳에 배치된 석상이 사람들을 공격했다.</p>  
<p>"으아아아악!"</p>  
<p>"내 팔! 내 팔!"</p>  
<p>안은 공포와 혼란의 도가니로 변했다.</p>  
<p>"헉, 헉..."</p>  
<p>진우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.</p>  
<p>다리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.</p>  
<p>갈수록 숨도 가빠졌다.</p>  
<p>하지만 진우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.</p>  
<p>'신께 찬양하라, 신께 찬양하라, 신께 찬양하라.'</p>  
<p>머릿속을 맴도는 두 번째 규율.</p>  
<p>그 수수께끼를 풀 열쇠는 분명 이 방 안에 있다.</p>  
<p>이 안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무언가가!</p>  
<p>하지만 헌터들이 처음 이 방에 들어 왔을 때, 주변을 샅샅이 뒤졌으나 뭔가 이용할 수 있는 장치나 도구 같은 것을 발견하지는 못했다.</p>  
<p>'그때나 지금이나 움직이는 것은 석상들뿐이야.'</p>  
<p>잠깐.</p>  
<p>무언가가 진우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.</p>  
<p>'움직이는 것은 석상뿐이다?'</p>  
<p>아차.</p>  
<p>진우의 눈이 커졌다.</p>  
<p>"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!"</p>  
<p>움직일 수 있는 것이 석상뿐이라면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석상뿐이다.</p>  
<p>석상은 사람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만 움직이니 이를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.</p>  
<p>'어쩌면...!'</p>  
<p>진우는 숨을 거칠게 헐떡이면서도 방이 떠나갈 정도로 고래고래 소리쳤다.</p>  
<p>"다들 악기를 든 석상 쪽으로 가요!"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  
  
 <style>